

# 쇠락한 불교 다시 일으킨 수나라 황제보살

## <12> 수(隋)의 건국과 문제(文帝)의 불교부흥

중국 천하가 남북조(南北朝)로 양분됐을 때 300여 년 분열기를 종식시킨 것은 수(隋)를 건국한 문제(文帝)이다. 그는 북주(北周)를 멸한 뒤 남조의 진(陳)을 병합해 역사상 세 번째로 중국을 통일시켰다. 후한시대 위·촉·오 삼국 시대부터는 400여년간의 일이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문제의 통치를 '개황(開皇)의 치(治)'라 평가한다. 이는 문제가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침공 실패 등 몇 가지 실책은 있었지만, 문제의 치세가 중국인들에게 몇 백 년 만에 안정을 줬음을 평가한 말이다.

문제는 또한 '황제보살'로 자칭했던 양무제(梁武帝)와 유사하게 스스로 '보살제제자(菩薩戒弟子)'라고 칭할 정도로 불교를 신봉했다. 수많은 불사를 일으켰고, 나아가 중국불교의 발전에도 중요한 사상적 작용을 일으켰다. 중국불교사에서는 양무제와 수문제(文帝)를 '양대(兩大) 황제보살'이라고 칭할 정도로, 중국 역사불교를 논함에 있어 수나라 고조(高祖)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계 경전을 사경하게 해 사찰에 보관토록 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천하의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민간에 불경을 육경(六經)의 수십 배가 되도록 비치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이는 불교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며, 민간의 불교신도는 폭넓게 증가했다.

문제는 개황 5년(586) 법경(法經) 법사를 청해 대흥전(大興殿)에서 보살계를 수지했다. 그 다음 해에는 담연(曇延)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팔관제(八關齋戒)를 수지했다. 문제는 점차 깊은 불법에 매료돼 '호법거사(護法居士)'라 자칭했다.

문제의 폐불에서 사찰과 탐의 건립이 일반 민중 교화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인식한 문제는 수많은 사찰과 탐을 건립했다. 도선(道宣)의 <석가방지(釋迦方志)> 권하의 통계에 따르면, 문제의 재위 20년간 "새로운 사찰 건립이 3792개소, 사경(寫經)이 46장(藏) 3853부(部) 13만2086권, 조상(造像)이 10만6560구(龕)"라고 했다. 이런 수치는 수대(隋代)



그림 · 김홍인

## 수많은 사찰 탐 건립 중국불교 주도권 회복 남·북 차별성 통섭시켜 종파불교 기틀 마련

문제의 본명은 양견(楊堅; 541~604)이다. 기록에는 동주(東州; 현재 섬서성 대례현 일대) 반야나사(般若耶舍)에서 태어나 어려서 비구니 지선(智仙) 스님이 양육했는데, 지선 스님은 그를 '금강불괴' 의미를 지닌 '나라연(那羅延)'으로 칭했다. 13세에 속가로 돌아간 문제는 황제에 즉위한 후 자주 신니(神尼; 지선 스님에게 "내가 황제가 된 것은 부처님 은혜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국의 모든 사리탑에 신니 지선 스님의 형상을 새기도록 명했고, 개황(開皇) 13년(593)에는 "제자가 옛날에 삼보(三寶)에 적을 뒀던 인연으로 현재 1000년 동안 운이 장성할 국가의 틀을 마련했다"라고 선포했다. 문제의 불교적 반연과 불교에 대한 신심은 대단했다.

수나라 역사서인 <수서(隋書)>에는 문제가 즉위 초년인 개황 원년(581)에 주(周) 무제(武帝)의 폐불(573~577)로 인한 회복을 위해 "출가를 위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수를 헤아려 비용을 제공하고, 경전과 불상 등을 마련하라. 경사(京師)와 병주(并州), 상주(相州), 락주(洛州) 등의 커다란 도읍에는 관리들에

불교를 크게 부흥시키는 기본적인 작용을 했다. 특히 주로 북방에서 이뤄진 사찰 건립은 주 무제의 폐불 후 남방으로 넘어간 중국불교 주도권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문제의 이런 노력은 당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유랑민에 대한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남북조 말기 잦은 전란으로 발생한 대량의 유랑민은 특히 북조 말기에 이르러 사회문제화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전(均田) 수전(授田) 등 정책을 실시했고, 또한 모병을 통해 군대에 편입했다. 그러나 전란 속에 군대에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적은 농토와 과중한 세금 때문에 땅을 받아 양민으로 전향하려는 사람은 적었다.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원했지만 국가의 승려수 통제로 인해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도승(私度僧)이 대량으로 늘었다. 사도승 중에는 참다운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적지 않았지만(후에 선종(禪宗) 4조(祖)로 추앙되는 도신(道信) 선사도 사도승 출신, 많은 수가 무리지어 민간을 떠돌며 여러 가지 폐해

를 일으켰다. 심지어는 반도(叛徒)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나라 건국 초에는 이런 사도승 문제가 존재했다.

개황 10년(590) 담천(曇遷) 스님 건의로 문제는 "모든 사도(私度) 승니(僧尼)들의 출가를 허용한다"는 조서를 내렸다. 이 조서는 바로 효력을 발휘해 <속고승전(續高僧傳)>에는 "사도의 승니 50여만 명이 동시에 수계했다"고 전해진다. 문제의 사도승을 인정한 책서로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찰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문제는 여러 곳에 관립 사찰들

을 건립했다.

문제는 불교 교학에 대해 장안(長安)을 중심으로 교학의 기구로서 당시 모든 학파의 유명한 학승을 초빙해 '오중(五衆)'을 세웠다. '오중'은 열반중(涅槃衆)·지문중(地論衆)·대론중(大論衆)·강유중(講律衆)·선문중(禪門衆)을 말한다. 각각의 '중'에는 또한 중주(衆主)를 설정했다. 열반중은 <열반경>을 중심으로 불성론을 주로 논했는데, 중주는 법총(法聰)·동진(董真)·선주(善胄) 등을 삼았다. <화엄경> 중심의 지문중의 중주는 혜전(慧辯)·영찬(靈璨) 등

이다. 대론중의 '대론'은 <대지도론>이다. 주로 <대품반야경>을 중심으로 했고, 중주는 법안(法彦)·보습(寶襲)·지은(智隱)이다. 강유중은 계율을 주로 했고, 중주는 홍준(洪遵) 등이었다. 선문중은 수정(修正)을 위주로 중주는 법응(法應) 등을 삼았다. '오중'은 이후 종파로서 전개됐다.

이외에 문제는 개황 12년(592) '오중'과 유사한 교화조직으로서 '이십오중(二十五衆)'을 건립했다. 중주는 전국에서 뛰어난 고승 25인을 삼았다. '오중'과 '이십오중'의 교화기구는 불교를 국가 통치권 내로 흡수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승관(僧官)을 설정해 불교를 황권에 복속시킨 북조(北朝)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보인다. 수문제의 교화가 북조이므로 당연한 결과로 보이지만 이로부터 중국불교는 철저히 국가권력에 종속됐다.

사상사입장에서 문제는 중국 통일 후, 남·북으로 크게 양분된 불교 교학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었다. 실제로 이런 작업은 문제의 아들로 후에 양제(陽帝)로 즉위한 양광(楊廣; 569~618)이 극진히 모신 천태 지의(智顛; 538~597) 대사에 의해 실현됐다.

양제는 비록 친부 문제를 모살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특히 지의 대사와 깊은 인연을 맺고 문제 재위 당시 '지자(智者)대사'의 시호를 추송했다. 지의 대사는 당시 "남방에서는 세 부류, 북방에서는 일곱 부류, 뜻으로 세분하면 수많은 종류가 있었다(南三北七, 義成百家)"고 칭한 수많은 교상판석(敎相判釋)을 종합했다. 지의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제반 불교학설을 법화(法華)와 반야(般若)사상을 중심으로 통합해 전태학을 제창했다. 지의 대사의 전태학은 남·북으로 양분된 불교학 통섭의 필요에 의해 출현했다.

문제는 불교만 중시하지 않았다. 황제로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유교와 도교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도 있었지만, 문제가 수를 건국할 때 도사 초자순(焦子順)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한 적도 있었다. 황제 즉위 후 문제는 초자순을 위해 '오통관(五通觀)'을 세우고, '천사(天師)'로 삼아 자주 국사를 의논했다. 유교도 숭상해 정치윤리의 기본관념으로 삼고 '태학(太學)'을 설립해 유학을 교육했다.

유·불·도를 함께 존중한 문제의 태도는 남·북조의 황제들의 기본적 입장이었고, 불교가 전래돼 중국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출현했었다. 문제 재위 당시 이사겸(李師謙), 왕통(王通)은 '삼교일치론' 등을 본격적으로 주장했다.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중국 천하를 통일해 수나라를 건국했다. 그에 따라 황제보살로서 무제의 폐불로 인해 쇠락한 불교를 부흥시켰고, 사상적으로도 남북의 차별성을 통섭시켜 본격적인 종파불교의 기틀을 마련했다. 문제의 이런 업적은 중국불교 발전과 거사불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제 적 공 고

### 대한선불조계종

- 사찰명 : 무진암
- 주 소 :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 직 위 : 총무원장
- 법명(속명) : 영곡 효주(설덕관)
- 사찰명 : 효타암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 직 위 : 교육원장
- 법명(속명) : 효타 원공(박정수)

위 스님은 본 종단 스님으로서 불기 2552년 5월 21일(양) 부로 직위해제 및 재직 되었음을 이에 공고 함

불기 255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 1동 426-26번지

대한선불조계종종단대표 원 경

- 임 원 -

- 종회의장 설봉 사무총장 승암 감시원장 중 상
- 교육원장 예각 포교원장 승호 총무부장 무애 재무부장 정해

##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있습니다.

###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농업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정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미승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허리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시킵니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로 단위로 포장합니다.

■ 주문하시면 (생선)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선)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늘 토종(민속농원)

##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중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 과정 1년 (서울, 경기 의식기준)

1. 사물다루는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에불, 각청(불공), 시식
2. 천 도 의 식 : 49재, 시련, 대령, 관옥, 신중작법, 상단관공, 시식
3. 각종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4. 대 상 : 승속 관계 없이 재가불자 수강 가능
5.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6. 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중무원 설법전
7. 수 업 료 : 매월 10만원
8. 접수연락처 : 054)762-5888, 011-819-7464  
팩스 054)762-5889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중무원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